

－ 권문의 인물을 찾아서 ①－

15만명에게 급식을 제공한 사랑밭 설립자

권태일 이사장 國民마을 건립 추진



한국사랑밭회(권태일 이사장)이 1997. 5. 5 가훈배주기 행사에서 가훈을 써주고 있다.

지금부터 25년 전 ‘나눔으로 충만한 생애를 살겠다.’ ‘주는 삶 되고 싶다.’ ‘사랑을 심어 싸을 띄운다.’는 등 생(畵)의 좌표로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은 노인, 고아, 장애인 등 도우면서 한국사회에 사랑의 씨앗을 뿌려온 거목(巨木)인 사회사업가 권태일(權泰一) 이사장, 지난 9월10일 오전에 서울 효유2동 사무실에서 만면에 행복한 웃음으로 맞이하는 씨를 찾았다. “함께 하는 사랑밭” 설립자 권태일(權泰一, 58歲, 경북성주, 검교공과 33世) 이사장은 1955년 9월22일 경북 성주군 초전면 봉성동 65번지에서 엄친 권중후 옹과 자당 김명남 여사의 6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다. 아버지는 목수로 일하다가 친구학원을 다녀 집을 놓으셨다. 태일씨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읍내 중학교 뒤 조그마한 집에서 진료를 했는데 환자들이 50m 정도나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로 융하다

고 소문이 났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간호사가 되어 환자를 돌봐 주었다. 권이사장은 죽어도 핏을 뜨지 못하겠다는 사람들을 붙잡아 놓고 시범을 보이는 조교가 됐다. 막내아들이었던 그는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으며 자랐다. 이로 인해 권이사장은 장래 자라서 병자들에게 인술을 펴 가난했지만 나눔의 귀중함을 물려받아 사회사업에 뜻을 두게 되었으며, 또한 모친이 심상찮은 태몽에 하늘에서 등불(초롱)이 살고 있는 집에 내려와 이 초롱(유리)에 이름을 새겨 하늘로 다시 등불이 승천하는 꿈을 꾸고 아들(권이사장)이 태어났다고 한다.

권이사장은 95년 충신신학교 목회학과 및 총회신학연구원을 졸업하고 세계성령화 부흥사연수원을 수료하고 베다니 대학(미국 알라바마주)에서 철학박사를 받았으며, 한영신학대·대학원 신학 명예박사학위를 받

았다. 이어 씨는 평생 남을 도우며 사는 자신의 꿈을 그려보면서 1988년 11월, 길거리에서 구걸하던 아주머니와 자녀를 돌보며 구제사회사업을 시작했다. 이어 87년 7월 제 도상 문제로 정부나 어느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지 못하는 노인, 고아, 장애인을 위하여 무의탁 공동체인 ‘달겨운 집’을 창립하여 소외된 이른 100여명을 입소시켜 가족같이 보살폈으며 입소자들의 대부(代父) 역할을 하기도 했다. 97년 인천지역에 사회복지법인인 설립해 아동 70명과 장애인 38명을 부양하기도 했으며 또 강원도 인제군에 (사) 실버홈을 설립해 장기 노인요양시설에 노인 120여명을 입소시켜 부양하기도 했다. 인천동구, 부평구에 무료 상설급식소를 설립해 98년부터 무료로 소망의 밥나눔 사업을 1일 400명, 연간 약 15만명에게 급식을 제공하기도 했으며 2007년부터 어려운 다문화가정을 선정하여 친정 방문기회를 제공했으며 필리핀(2개), 베트남(2개) 4개 가정을 친정 보내기 사업을 지원했다. 또 97년부터 13회에 걸쳐 거동이 불편한 노인, 지적장애인 등 12,000명에게 ‘바다(海) 보여주기’ 행사를 실시해 복지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했다. 그리고 2007년부터 화상입은 환자를 비롯한 희귀난치병 등 12명에게 후원금 1억5천만원을 모금해 수술비, 생활지원금을 전달했으며, 2010-2012년 3년에 걸쳐 후원금 2억3,500여만원을 모금해 불우이웃 등 이벤트행사에 지원했다. 지난 2003년 인천시청으로부터 (사) 사랑밭 새벽편지를 설립해 지금까지 총 2백만명의 회원들에게 새벽편지를 발송했으며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꿈을 심

어주고 있다. 97년부터 중국 북경, 연변, 훈춘시에 수재원을 설치해 어려운 학생 1,000명의 학비를 지원했고, 제3세계 지원으로 저소득 국가 22개국에 그룹홈을 설치했으며, 국내 각 대학과 연계하여 그룹홈 35개소 200명 회원이 입회해 1,300명 아동에게 자매결연을 맺어주기도 했다. 2010년 10월 (사)세계교육문화원 이사장에, 같은 해 11월에 (사)한국사회복지미래경영협회 이사장에 취임했다. 이렇듯 권이사장은 국내외적으로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사회봉사상(2002.4) △밝은사회봉사대상(2003.12 인천검찰청, 인천시청) △자원봉사상(2003.12 행정자치부장관), 감사패, 공로패, 협정사, 양해각서, 기부증서 등 다수를 받았다. 더불어 2009년 8월5일 중국 연변 사단법인 봄비에심회(이사장 태기순)에게 아파트 한 채를 기부했으며 2010년 6월 한국자원봉사협의회(상임대표 이재훈) 조선일보(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나눔문화 협력단체에 가입하기도 했다. 그리고 권태일이사장은 앞으로 생(生)의 원대한 꿈으로 우리나라에 종합적인 복지타운 ‘사랑의 국민마을’ 건립을 위해 5천원 계좌로 설정해 땅 한 평 사기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현재 중국 조선족집기로 훈춘시에 있는 목축지 6백70만평을 무상으로 50년간 임대받았으며 5백만-1천만평의 대지에 고아원과 양로원 등 사회복지시설이 집약된 ‘사랑의 국민마을’을 실현해 보는 것이 권태일 이사장이 인생 최대의 목표로 하고 있다. 오늘날 태일族은 꿈은 언젠가는 이루어 진다라는 백전불굴의 신념 하에 그간 버림받은 이들의 어머니가 된 아내 홍



제3세계자원기관 세계사랑밭 창립기념(월드아가페창립기념)행사에 참석한 권태일 이사장과 임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2004. 10. 14).



권태일 이사장이 ‘미혼모 아기에 배넛지고리 보내기행사(2010 나눔문화 대축제)에, 이명박 대통령 내외분과 사랑밭회 임원진이 기념촬영.



권태일 이사장 및 임원들이 중국 연변(사랑밭)에서 경로당 착공식을 하고 있다(1997. 10. 23).

현송여사(52歲 충북진천)와 사이에 1남5녀 두고 있다. 장남(형원), 장녀(효정), 2녀(효선), 3녀(예원), 4녀(예성), 5녀(소현)을

연락처 02)2612-4400 <글 / 권오복 편집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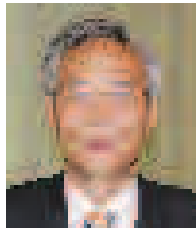
국가관 없는 국민이 행복할 수 있을까

8월은 우리 민족에게 한라암이 기쁜 달입니다. 36년 동안 일본치하에서 나라와 민족이 핍박을 참아낸 끝에 8.15해방을 맞이한 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해방의 기쁨도 잠시였고 분단국가로서 고난을 맞게 된 우리나라에서 국민을 결속시켜줄 수 있는 정신적 구심점은 사람으로 치면 하나의 심장과 같은 것입니다. 국가관은 국가가 있기에 나도 존재한다는 마음을 갖고 열심히 자기 책임을 다하도록 만드는 마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국민이 함께 지켜나갈 수 있는 공통의 국가관을 갖고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들이 서로 도우며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그보다 더한 복이 없을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영웅들의 영령을 기리고 국민의 안보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상징물인 ‘호국보훈의 꽃’이 2년째 건립 장소를 마련치 못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국가보훈처가 올해 5월말부터 전국 10만 여평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와 온라인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한 서울 광화문광장을 건립장소로 결정했지만 장소 사용 승인권을 가진 서울시가 기존 조형물과의 조화 및 관리상 어려움을 들어 부정적 입장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8월에는 국립서울현충원에 이를 설치하는 방안을 보훈처가 발표했지만 국회정부위원회에서 갑론을박을 벌

이다 결국 장소를 재검토해 보고하라고 보훈처에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또 얼마 전엔 애국가는 국가가 아니라고 하는 국회의원 발언이 있었습니다. 애국가와 태국기를 우습게 여기고 버려야 할 남의 나라 것처럼 취급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 행세를 하는 오늘의 세태는 나라를 되찾고 세우고 발전시켜온 선열들 보기에 민망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나라를 지켜야 할 젊은이들이 36년 동안 일본 치하에서 조상들이 마음 아프게 고생하며 살아온 것을 진심으로 느낄 수 있도록 기성세대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탓이 아닐까 싶습니다. 6.25전쟁과 배고픔을 겪어보지 못한 세대가 많아지고 이념갈등이 맹위를 떨치면서 나라에 대한 관심과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쉽게 모아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누구나 한번은 죽게 되는데 살아 있는 동안에 자기만을 위해서 삶을 살아간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한다는 것이 반드시 어떤 큰일을 하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길거리에 휴지가 있거나 장애물이 있다면 그것을 치우는 마음도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사우나시설을 이용할 때 선풍기를 사용하고 난 뒤 스위치를 끄지 않는 것도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적기 때문이



권 송 성
국보디자인회장
본원부총재

아닌가 생각됩니다. 나라가 전력 부족으로 힘들어할 때 작은 실천 하나라도 보태는 것이 바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될 것입니다. 나라 일을 책임지고 국정에 임하는 분들이 정말로 국가관을 갖고 국가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았기에 국민의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약해지는 측면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국민이 쉽게 흔들리지 않는 튼튼하고 훌륭한 국가관을 갖고 있다는 것을 국정을 맡은 세력이나 정치인들이 뼈저리게 느끼게 만든다면 함부로 국정이나 정치를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19대 국회의원에게 당선된 이들 가운데 국민의 눈에는 이상하게 비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왜 그런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오도록 방치했는가 물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요즘 국립묘지에 참배를 할 때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에게 죄송하고 미안한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앞으로는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우리 사회가 좀 더 성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산악회 도봉산 산행

서울산악회(회장권영석)는 지난 9월 16일(일요일) 오전10시 도봉산 입구 만남의 광장에서 죽친 회원 30여명이 집결, 9월 정기산행을 개최하였다. 이날 산행은 도봉산 계곡 능선을 따라 마당바위를 거쳐 천축사 경유 신선대 정상 등반 후 포대능선을 따라 망월사(望月寺)로 하산하는 계획된 풀코스(풀코스)로, 오후5시에야 하산되었다. 근간 산행 중 초기의 신선한 바람과 도봉산의 화강암 바위의 기암괴석(奇巖怪石) 등 수려한 경관을 만끽하면서 모두들 모처럼 복잡한 도시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산나는 산행이 되었다. 이날 월례회는 마당바위를 지나 헬기장 능선일대에서 중식을 마치고 죽친 회원이 모두 한자리 모여 경락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으로 경과보고와 이어 영석 회장의 인사로 “오늘 날씨도 산바 태풍의 영향으로 가을 피약 빛도 가려 시원한 가을바람 속에 등산하기에 이를 데 없는 날씨 같습니다. 모두들 건강한 모습을 뵈오니 반갑습니다. 금번 산행은 추석 전이라 죽친 회원님들이 벌초(伐草)간다고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 오늘 등반시 안전주의의 바라며 추석 잘 보내고 다음 달 산행에 뵈도록 하였습니다.” 라고 인사하였다. 끝



서울산악회 도봉산 산행 기념촬영을 하였다.

으로 오준 등반대장이 10월 정기산행은 3호선 삼송역 8번 출구 10시에 집결 노고산 등반을 공지하였다. <권범봉 본원기자>

안동능곡회 야유회

안동능곡회(회장 권기택)는 지난 9월 1일 무릉유원지에서 부부동반 80여명의 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야유회를 가졌다. 이날 권기택 사무국장의 사회로 상례행사에 이어 권영세 안동시장, 권광택·기택 안동시의원, 권영진 초대 능주회장, 현회장 권영소 안동대(법학박사) 등 내빈을 소개했다. 권기택 능곡회장의 인사말이 있었으며 권재주 안동중친회장의 격려사, 권영세 안동시장의 축사 후, 사무국장의 공지사항을 공지했다. 1부 행사가 끝나고 2부 행사에 들어가 푸짐한 경품을 준비해 이를 추첨해 나누워 주면서 회원간의 족의를 더욱 두텁게 했다. <권혁세 기자>



안동능곡회가「무릉유원지」에서 야유회를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창화공 추향 안내

경기도 장단군 진동면 서곡리 민통선 내 창화공 김창부원군(吉昌府院君·14世 贊成事 昌和公 (諱 準))의 추향을 다음과 같이 봉행하오니 본 손은 물론 방문여러분의 많은 參祭바랍니다.

- 일 자 : 2012년 10월 28일 (每年 10월 넷째 日曜日) 12시
- 교통편 : 서울 세종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9시30분 전세버스가 출발함. 그밖에 승용차나 다른 교통편을 이용하시는 분은 파주시 임진강 복진교(리비교) 광장에 10시30분까지 도착하실 것.
- 지침물 : 주민등록증 지참
- 연락처 : 창화공종회장 권병선 02)957-8822, 010-5273-7475

2012년 10월 1일

안동권씨 창화공종회 회장 권병선

안동권씨 북부종친회 모임안내(도봉구, 강북구, 노원구, 성북구)

안동권문 회원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아래와 같이 일정을 알려드립니다.

- ▲ 일시 : 2012년 10월 12일(금요일) 오후 6시
- ▲ 모임장소 : 지하철 4호선 길음역 5번출구 앞 길비명가 이상 (전화 : 02-919-8000, 011-9596-2579)
- ▲ 회장님께서 건강상 종친회를 연인할 수 없어서 의논 한 바 명예회장이 위임받아 회의를 소집하오니 중보 신문을 구독하신 분과 4개지역내 해당하신 분은 꼭 참석하시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리며 주변에 개인분에게 연락하시어 같이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 ▲ 북부회수회를 폐기하고 안동권씨 북부종친회로 改稱하고자 합니다. 도봉·강북·노원·성북구 4개지역을 대상으로 본회 회원님으로 추대하겠으며, 회비는 당일 일절 받지 않습니다. 권문을 위하여 많이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을 받으신 분과 중보를 보신 분은 참석 여부를 연락바랍니다.)
- ▲ 안건 : 본회를 발족하고 운영방안 토론·회장선출, 임원선 선출, 기타토론

2012년 10월 1일

회장대행 권영섭 드림 010-7308-6896